

제언

지역 중심의 ‘도서관 및 독서운동’을 주창하며



글·이 제 환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jwleeh@pusan.ac.kr)

‘수요자 중심’ 혹은 ‘지역 중심’이라는 용어가 전혀 낯설지 않은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공급자가 아니라 수요자의 관점이, 중앙이 아니라 지역의 관점이 우리 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점차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음을 입증한다. 도서관 및 독서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서 뜬금없이 고객 혹은 지역 중심의 경영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늘어놓는 까닭은 우리가 그동안 추진해온 도서관 및 독서운동이 과연 수요자 혹은 지역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는지에 대한 의문이 새삼스레 밀려오기 때문이다. 특히, 한국도서관협회 등 중앙의 기관,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추진해온 도서관 및 독서운동이 반세기가 가까워 오도록 아직까지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면서 혹시 운동의 철학과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돌아보면 해방 이후 참으로 오래 동안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있어 초미의 관심사는 ‘지식의 추구’가 아니라 ‘의식주의 해결’이었다. 특히, 30년에 걸친 군사독재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의 지식관은 철저히 오염되고 왜곡되었다. 출세를 위한 지식만이 정부에 의해 ‘공인’된 학습의 대상이었고 각종 사회문제를 인식하고 대처하는데 필요한 지식은 금기의 대상이었다. 이후 민간정권이 들어섰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일반 시민에게 있어 고급 지식의 추구는 여전히 특별한 의지와 노력을 요하는 작업으로 남아 있었다. 경제

적 효율과 경쟁력을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에서 인문학적 지식은 무게를 잃었고 물질적 풍요를 보장하는 단편적 지식만이 가치를 더해 갔다.

이러한 현상은 21세기로 접어들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디지털'은 이제 우리 사회의 중심적 이데올로기가 되고 있다. 문자보다는 영상을 그리고 합리보다는 직관을 선호하는 세대가 국민의 다수를 점해가고 있다. 특히, 속도와 감성이 인성을 지배하면서 느낌의 미학은 사라지고 인내는 무능으로 폄하되고 진중함은 게으름으로 치부되는 안타까운 현상이 도처에서 번져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도서관이 아니라 인터넷이, 독서가 아니라 채팅이 일상적 지식의 충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 진데 어찌 대중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시민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도서관과 독서운동이 이 땅에서 건강하게 뿌리 내리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더욱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도서관사람들과 독서교육가들이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시민들의 의식과 행태의 변화에 애써 무심하다는 점이다. 그들 대부분은 여전히 시민들을 '계몽'과 '교육'의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간주하면서 공급자요 지도자의 입장에서 시민들을 '지식화'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의무감을 불태우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시민들의 지적 요구와 정보추구행태가 개인적 변수는 물론이고 거주 지역이나 생활환경적 특성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도서관 및 독서운동을 범시민적 운동으로 승화하자는 구호에만 주력하였지 막상 일반 시민들의 다양한 지적 요구를 파악하고 그들의 요구와 상황에 적합한 방식으로 운동을 전개하는 데는 소홀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우리 도서관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우리의 눈높이가 아닌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 도서관 및 독서운동을 전개하고자 하는 의식의 전환이다. 특히, 운동의 철학과 전략에 있어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범국가적 캠페인의 전개보다는 운동의 지역적 기반을 강화하여 운동의 대상을 지역 단위로 돌리고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 적합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려는 자세와 노력이 절실하다. 나는 기존의 도서관 및 독서운동이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 중심의 운동이 되지 못하고 중앙 중심적으로 전개되면서 지역의 주민들을 단순한 들러리로 만들어 온 것을 커다란 잘못으로 보고 있다. 따지고 보면 도서관의 이용자도 독서의 주체도 모두 지역의 주민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지적 그리고 문화적 요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수도권에 기반을 둔 소수 운동가들의 지식과 경험에만 지나치게 의존하는 우를 범해 왔던 것이다.

실제로 기존의 도서관 및 독서운동의 대부분은 수도권에 위치한 일부 기관과 소수 핵심 인력이 중심이 되어 '그들만의 운동'으로 전개해 온 감이 없지 않다. 대부분의 경우 관련

기관이 소수의 명망가를 앞세우거나 소수 명망가가 관련 기관을 울타리 삼아 시민단체를 결성하고 운동을 전개하는 양태를 보여 왔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 운동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전개되기보다는 단발성 혹은 이벤트성으로 진행되다가 해당 기관이나 명망가의 관심이 줄어들면서 용두사미 형태로 종식되고 마는 아쉬운 모습 또한 종종 노정해 왔다. 물론 일부 지역에서 전문가나 시민운동가가 중심이 되어 시민단체를 결성하고 독서운동을 주도해 가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그들 역시 대부분이 인적 그리고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활동을 중지하고 마는 안타까운 모습을 종종 보여 왔다.

그동안 이러한 제반 현실과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보면서 나는 기존의 도서관 및 독서운동의 기본 철학과 전략이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무엇보다도,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중심으로, 중앙이 아닌 지역 중심으로, 관이 아닌 시민 중심으로 운동의 주체와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지금과 같은 중앙 집중적인 방식이 아닌 지역 분산적인 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면서, 지역의 주민이 주체가 되는 도서관 및 독서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다녔다. 그리고 이를 위한 가장 실질적인 실행 전략으로 그동안 중앙 집중적 방식에 기초하여 범국민적 차원의 도서관 및 독서운동을 전개하느라 고군분투해 온 한국도서관협회의 체제와 역할 그리고 기능부터 혁신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글을 통해 나는 다시 한번 제안하고자 한다. 지역의, 지역에 의한, 지역을 위한 도서관협회 등을 광역시나 도 단위에 독립적으로 설립하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지역 단위의 도서관 및 독서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을 주창한다. 그래서 지역의 문제는 '지역도서관협회'에서 대응하고 국가적 문제는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대응하는 이원화된 협력체제를 갖출 것을 제안한다. 가령, 지역 단위의 행정기관이나 대의기관 혹은 교육기관 등을 상대로 하여 지역의 도서관 및 독서 인프라의 혁신을 위한 교섭을 수행하는 문제까지 중앙에 위치한 '한국도서관협회'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모습은 지양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처럼 나는 이원화된 협력체제에 기반하여 중앙과 지역이 상호보완적인 도서관 및 독서운동을 전개해 나갈 때 비로소 우리가 반세기에 걸쳐 추진해온 건강한 지식문화의 뿌리 내리기 작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 있으리라 굳게 믿는다. 